

제24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1 공통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세트 1

1. 제시문 해설

(가)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지식 부족의 악순환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소통 관계로 인해 그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집단적 정치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중적 소통은 이른바 집단지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끊임없이 유동하고 생성되는 집단적 지성은 공동체적 기획의 혁신적 국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정치적 지식의 부족과 무관심을 극복한 '지성적 집단'이 실천적 주체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 아마존의 협업필터링은 구매자의 취향을 네트워크적으로 분석하고 기대되는 구매내용을 앞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아마존의 그 네트워크적 지성은 온전히 아마존의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가 아마존에 접속하는 순간 그는 몇 권의 책을 미리 제공받는다. 이 책들은 협업필터링 작업을 통한 분석의 결과로 제공되었을 것이며, 그 정확도는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의 현실태가 결코 그 구매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같은 의미에서 구매자는 그 네트워크 위에서 다른 구매자들과 소통할 수 없다. 구매자는 여전히 개별자일 뿐이며, 아마존만 지성적 집단인 것이다.

(다) 트위터의 팔로우 기능은 단적으로 말해서, 혁신적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 단순하고 기능적인 몇 가지 작동만으로 트위터는 단박에 네트워크적 상호 소통을 집단적으로 구성해 낸다. 그로부터 정치 참여의 혁명적인 변화가 현실화되었고,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는 역량을 보여줬으며, 집단지성의 현실 참여가 선동과 명령 없이 대중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그림1> 제시문 (나)의 아마존 협업필터링 과정을 적시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단계별 매트릭스를 통해 구매자들의 취향과 친연(親緣)관계가 분석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때 구매자는 아마존의 지성에 개입할 수 없다. 단지 제공되는 정보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2> 제시문 (다)의 트위터에서 구체화되는 상호 소통의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시작글과 댓글의 단순 소통에서부터 댓글과 댓글의 이차적 소통과 특정 댓글에 대한 광범위한 팔로우에 기반을 둔 소통까지가 그것들이다.

2. 논제 해설

제시문 (나)와 (다)의 차이는 양자의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있다. 아마존의 경우 네트워크적 지성은 오로지 기업이 생산하고 소유한다. 소비자는 그 지성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수렴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트위터는 사용자들의 상호 소통에 따른 네트워크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이른바 '집단지성'의 혁신적 국면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문제에서는 (나)와 (다)를 <그림 1>, <그림 2>를 참고하여 비교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반드시 '소통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대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조건 상 <그림 1>과 <그림 2>를 참고하지 않은 어떠한 분석도 허용될 수 없다. 논술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

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예시답안

문단	내용
1	두 그림은 순서대로 각각 제시문 (나)와 (다)에 대응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마존이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정보의 일방향성이다. 아마존의 매트릭스는 오로지 그들만의 집단 지성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는 그들의 집단 지성에 개입할 여지를 가지지 못한다. (나)의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마존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로부터 개별 소비자 간의 일정한 친연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친연관계는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주어진 결과에 불과하며 그 관계의 네트워크적 생산에 소비자는 아무런 소통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2	반면 <그림2>가 보여주는 트위터의 토론 구조는 형식적으로 거의 완전한 소통 관계를 구현해내고 있다. 트위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개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교환된 의견은 팔로우나 리트윗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단순한 일회적 교환에서 댓글의 무한한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트위터의 소통구조는 그 경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스스로 의견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의견들을 자발적으로 확산해가는 집단적 주체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3	제시문 (가)의 후반부에서 역설하고 있는 집단 지성은 바로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와 실천적 역량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더불어 그 지성적 집단의 출현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며 내부의 소통과 의견의 교환 역시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적 네트워크가 아닌 트위터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집단 지성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성질의 공동체와 혁명적인 현실 변화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95자)

세트 2

1. 제시문 해설

(가) 핵심은 힘의 대칭 혹은 균형 혹은 합이다. 원운동하는 롤러코스터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중력과 구심력의 합에 해당하는 동일한 원심력이 맞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힘의 균형이 롤러코스터를 안정적으로 회전시킨다는 결론으로부터 제시문 (다)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학 제시문이 나왔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다. 핵심만 파악하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이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은 개인들의 양심보다 국방의 의무를 더 우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을 수호하는 중요한 실천인

만큼, 양심의 자유보다 결코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 차이의 정치는 구성적 공공선으로부터 모색 가능하다. 지배 집단이 '이미' 정해 놓은 표준의 공공선은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역할 이외의 것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이의 집단, 소수자의 집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선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롤러코스터를 돌리는 두 힘의 균형과 같이 주류와 소수자의 힘이 정치적 균형을 이룰 때 사회적 공공선이 마땅하게 구성되고 마련되는 것이다.

2. 논제 해설

(가)의 두 힘, 롤러코스터를 안정적으로 회전시키는 두 힘이 (다)의 두 힘, 지배 집단과 소수자 집단의 두 힘과 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일이 우선적 관건이다. 두 집단의 힘의 균형이 정치적/사회적 공공선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통찰이 확보되면 그로부터 (나)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판결을 손쉽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논술 시험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의 글을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문제의 요구사항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예시답안

<논제 1>

문단	내용
1	(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원운동하는 롤러코스터가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으로부터 그 안정적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힘 가운데 어느 한쪽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롤러코스터는 곧바로 추락하고 만다. 이러한 두 힘의 관계는 (다)의 두 집단의 힘과 유비적 관계를 갖는다. (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차이의 정치는 지배 집단의 힘과 소수자 집단의 힘이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때에야 실현될 수 있다. 지배 집단의 정치 행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그들이 이미 마련해 놓은 표준이 곧 공공선이라고 강변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마련된 공공선에 소수자 집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방식의 공공선은 이제 소수자들이 주류 집단과 동등한 정치적 조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획득되어가는 구성적 공공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반면 힘의 균형과 구성적 공공선의 확보라는 가치가 말살되는 구체적 정치 상황은 (나)로부터 목격된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목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차이집단을 배제하는 행위일 뿐이다. 물론 법질서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이 국가의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한 원운동처럼, 국가는 구성원들을 국가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차이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

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들의 차이적 권리와 그것의 적극적 수렴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구성적 공공선의 확립이다. 이미 마련된 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지배적 공공선을 지양하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가령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같은 방식을 찾아나간다면 차이와 공공선은 양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844자)

Ⅱ. 읽기자료

[모색21] 지식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몸피가 커질 뿐...

■ 지식인의 죽음, 지식인을 위한 변호

유럽 은행의 초대 총재를 지낸 저술가 자크 아탈리는 지난해에 낸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지식인(intellectuel)」을 이렇게 정의했다. 『세상의 광기를 자유롭게 관찰하는 사람, 확신시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지배하기보다는 매혹하려고 애쓰는 사람, 순응주의에서 벗어난 사람, 세상이 잠든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 눈먼 확신의 속죄양』

아탈리 특유의 발랄한 레토릭이 지식인을 다소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듯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20세기의 지식인상(像)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탈리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인다. 『그(지식인)는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옛 형태로 다시 나타나, 기구, 국가, 기업, 파벌 등을 위해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것이다』 21세기의 지식인은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아탈리가 사용하는 이말은 말할 나위 없이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에게서 빌어온 개념이다.

그람시에 따르면, 유기적 지식인은 어떤 계급, 특히 지배 계급에 의해 창출돼 지배계급과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지식층이다. 유기적 지식인은 지배 계급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물론 프롤레타리아도 자기 계급을 조직하는 유기적 지식인을 거느릴 수 있지만, 「기구, 국가, 기업, 파벌」에 봉사한다는 아탈리의 말로 보아, 그 유기적 지식인이 노동자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아탈리가 내다보는 21세기의 지식인은 19세기말부터 주로 프랑스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된 지식인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식 계급이다. 아탈리는 21세기의 지식인은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말을 살뜰 흘림으로써, 실은 「지식인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지식인의 족보를 살피자면 조선조의 유자(儒者)나 선비에서 그 가까운 기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대적 의미의 지식인은 프랑스어 「앵텔레튀엘(intellectuel)」의 번역어로서 성립됐다. 프랑스어에서도 앵텔

렉튀엘이라는 말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자크 질리아르와 미셸 위노크가 책임 편집한 「프랑스 지식인 사전: 인물, 장소, 사건」(1996)에 따르면, 프랑스어에서 앵텔레튀엘이 명사로 처음 사용된 것은 생 시몽의 「산업 체계에 대하여」(1821)에서였고, 그 말이 대중화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다.

19세기 말이란 구체적으로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의 여론을 또렷하게 갈라놓았던 드레퓌스 사건을 가리킨다. 프랑스 군부의 음모에 휘말려 독일군의 스파이로 몰린 유대인 알프레 드레퓌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한 작가, 예술가, 기자, 학자들을 반(反)드레퓌스파들이 「앵텔레튀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이 말에는 「현실에서 유리된 이상주의자」 「무책임한 선동가」라는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함의가 담겨 있었다.

드레퓌스 옹호자들의 후예이자 지칠 줄 모르는 참여를 통해 지식인이라는 말의 상징이 된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1972)에서 드레퓌스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반드레퓌스파가 지식인이라는 말에 담은 부정적 의미를 오히려 영예롭게 받아들인다.

1965년의 일본 방문 때 행한 세 차례의 강연을 모은 이 책에서 사르트르는 지식인에 대한 모든 비난은 「지식인이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정확한 정의라고 되받았다. 지식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바꾸면 지식인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드레퓌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던 에밀 졸라나 아나톨 프랑스 같은 작가처럼 말이다.

사르트르는 더 나아가 지식인은 자신의 지적 영역에서 쌓은 명성을 「남용」(사르트르에게 이 말은 당연히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하여 기존의 사회와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바로 이 남용이야말로 지식인의 본질적 부분이고, 어떤 체제, 어떤 시대에도 지식인이 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자라는 의미에서 지식인은 대체로 좌파 지식인을 뜻했다. 특히 사르트르 시절의 프랑스에서 그랬다. 사르트르의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좌파 지식인들은 프랑스 지식계를 장악했고, 그래서 마르크시즘을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규정한 레몽 아롱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도덕적으로 비난한 카뮈 같은 사람들은 지식계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 지식인과 마르크스주의의 단절이 나타난 것은 앙드레 글뤽스만이나 베르나르 앙리 레비 같은 신철학자들이 마르크스의 죽음을 선언한 70년대 중반 이후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사르트롱(사르트르 + 아롱)적 지식인이었다. 1979년 베트남의 보트피플을 원조하기 위해 사르트르와 아롱이 화해하고 힘을 합쳤듯, 체제 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의를 미뤄두고 인권이나 민주주의적 절차를 강조하는 느슨한 지식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탈리는 21세기의 지식인이 유기적 지식인, 곧 기능적 지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잣아든 좌파의 목소리나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유기적 지식인의 화려한 무대 활동은 아탈리의 예측을 그럴싸하게 만든다.

좌파 이념의 쇠잔과는 상관없이 21세기에 지식은 좀더 널리 공유될 것이고, 전통적 의미의 지식인은, 그가 비록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미있는 계층을 형성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인과 대중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하게 될 것이다.

지식인의 죽음은 임박한 듯하다. 그러나 지식인의 죽음은 한편으로 대중의 지식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대중에 기원을 둔 그 새로운 지식인이 기구, 국가, 기업, 파벌 등을 위해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유기적 지식인」이 아니라 사르트르적 의미의 지식인, 또는 아탈리가 말하는 「순응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가까웠으면 하는 것이다. 희망이 예측을 대치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삶의 원기소(元氣素)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식인은 죽지 않았다. 다만 몸피가 커지고 있을 뿐이다』

- 고종석 『코드 훔치기』 中 일부 발췌-